

## 2024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분야 【창작준비】지원 심의평

2024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 분야 <창작준비>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5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시각예술분야-창작준비 지원>에 644명이 지원하여, 유례없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작 준비를 위한 작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네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분야 창작준비 지원 심의에는 600여명이 지원하여, 예년에 비해 역량있는 작가들이 매우 많이 참여하였다. 심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견 작가의 경우 지원자의 역량 뿐 아니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고려하여 심사하였고, 중견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신진작가군의 경우 작업 주제의 일관성과 동시대성, 지원서의 충실도와 작업 주제와의 연계성과 개연성을 고려하였다.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않았던 작가군으로의 확장성 또한 심의에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 본 지원사업에 지원한 많은 수의 지원자가 자신의 작업과 리서치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간 진행한 작업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와 앞으로 진행할 리서치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리서치의 과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작가들의 지원서에는 동시대 미술 의제를 반영하는 흥미로운 주제뿐 아니라, 자신의 작업 어법을 찾는데 분투하는 여러 시도가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자신의 신작 제작, 전시 창작이 아니라 작업 전반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 대상과 실천의 방식을 제시하는 작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수많은 지원서 중에서, 작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간의 작업 세계를 돌아보고 이후 작업 주제를 풍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했다.

○ 심의에 있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원자 수였다. 큰 규모의 지원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만 600명이 넘는 예술인이 이번 사업에 지원하였고 경기도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높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계기였다. 지원자의 경력 차이도 큰 편으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작가부터 이미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까지 그 폭이 다양했다. 하지만 창작준비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서가 상당수 있었고 작가의 역량이나 작품의 질보다 작품 준비를 위한 계획서 형식에 맞게 제출한 지원서를 우선으로 선별하였다. 우수한 작가들도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쉽게 높은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 이번 심의는 우선 양적으로 많은 작가들의 지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그만큼 다양한 형식의 지원사업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이나 현실적인 상황, 어려움들을 반영하고 싶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응모한 만큼 현재 작가들의 다양한 관심들도 살펴볼 수도 있었는데, 생태, 환경,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와 같은 동시대의 시의적인 사안에 대

한 것들이나 이를 위한 연구, 리서치, 실험, 협업 등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제안들도 상당히 많았던 점도 흥미로웠고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개별 작가들의 편차나 관심, 스펙트럼 역시 무척이나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지원에 비해 최종 선정건수는 제한되어 있어 심의에 각별히 신중하게 임했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이번 지원 사업이 단순한 창작지원, 작품제작지원이 아니라 그 전단계인 사전연구에 해당하는 제안들을 선정하는 사업이라는 점이고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와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들의 창작은 사전 단계와 실제 제작 과정이 명확하고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경쟁으로 진행되는 사업만큼 이번 심의는 여타의 평가기준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이번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러한 근본 취지에 적합한, 사전연구, 창작준비 지원에 해당하는 제안들만을 선정하고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자 했다. 현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역량 있는 작가들은 물론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담은 제안들이 많았고, 많은 지원에 비해 제한된 선정작을 가려야 해서 무척이나 쉽지 않은 심의였지만 아무쪼록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은 물론 지원한 모든 작가들 제안서의 흥미롭고 진지한 내용들만큼이나 꾸준하고 활발한 작업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심의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2024. 2. 23.

심의위원	민병직	독립기획자
심의위원	현시원	시청각 랩 대표
심의위원	이은주	독립기획/미술평론가
심의위원	한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